

보도자료



공생발전: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글로벌 코리아 2012

보도일시	이 자료는 2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2년 2월 21일(화) 10:00
문의처	서중해 KDI 연구위원 02-958-4171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 02-958-4042 강승룡 KDI 홍보팀장 02-958-4035

※이 자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에 동시 배포됩니다.

「글로벌 코리아 2012」 공생발전: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 발표자료 요약 -

-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09:00~18:00
- 장 소: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F)
- 주 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KDI
- 후 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박진근)는 2월 23일, KDI 주관으로 「글로벌 코리아 2012」를 공동 개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 방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함.

- ‘공생발전: 위기 이후 자본주의와 한국의 과제’ 주제의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균형,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공생발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적 실현 전략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글로벌코리아 2012 세션 별 논의 방향

- (개막 좌담회) 공생발전의 개념 및 비전
: 연아 마틴 캐나다 중신 상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개막 좌담회에서는 공생발전의 개념 및 비전을 주제로 조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공생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참여와 파트너십의 창출 방안을 모색함.
- (세션 1) 지속가능한 성장: 자본주의 성장동력의 회복
: 현오석 KDI 원장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 성장동력의 회복 방안으로서 동반성장의 가치와 중요성을 점검하고, 그 현실화를 위한 국가와 시장 부문의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세션 2) 미래를 위한 투자: 합리적 복지제도의 설계
: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한 유럽 모델과 불평등 심화에 봉착한 자유주의 모델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살피고, 구체적 복지 제공 범위 확정 등 논쟁적인 이슈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함.
- (세션 3) 공정한 사회: 사회적 경제의 확충
: 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확충을 주제로,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목표 간 충돌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함.

□ 글로벌코리아 2012 사전·사후 컨퍼런스 개최

- KDI는 「글로벌코리아 2012」 전날인 22일과 다음 날인 24일, 각각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복지의 미래', '공생발전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의 협력'을 주제로 사전, 사후 컨퍼런스를 개최, 「글로벌코리아 2012」의 논의를 심화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

- 22일의 사전 컨퍼런스에는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교수를 비롯해, 『부자아빠의 몰락』, 『승자독식사회』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펴낸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경제학 교수, 복지 등 사회정책 분야 최고의 석학인 스테판 라임 프리드 브레멘대 교수, 조셉 왕 토론토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등 『글로벌코리아 2012』의 주요 연사들이 24일의 사후 컨퍼런스에는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가 지원단체인 아쇼카, 유럽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 Groupe SOS 소속의 투자 및 컨설팅 회사 Le Comptoir de l'Innovation, 국내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 지원 체인인 사단법인 소시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 ❖ 첨부 #1. 글로벌코리아 2012 프로그램
- ❖ 첨부 #2. 발표자료 요약
- ❖ 첨부 #3. 주요 연사 및 사회자 프로필
- ❖ 첨부 #4. 미디어 가이드

❖ **첨부 #1. 글로벌코리아 2012 프로그램 (2. 23, 목)**

시 간	내 용
09:00~09:05	개회사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09:10~09:25	기조연설
09:25~10:40	개막 좌담회. 공생발전의 개념 및 비전 사 회: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 패 널: 윌렘 빔 쿡 前 네덜란드 총리 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 회장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LSE 교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前 대한민국 총리
10:40~10:55	휴식
10:55~12:40	세션 1. 지속가능한 성장: 자본주의 성장동력의 회복 사 회: 현오석 KDI 원장 패 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LSE 교수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 라젠드라 시소디아 벵골리대 교수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 임혁백 고려대 교수
12:40~14:00	오찬 오찬 연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4:00~15:45	세션 2. 미래를 위한 투자: 합리적 복지제도의 설계 사 회: 임현진 서울대 교수 패 널: 스테판 라인프리트 브레멘대 교수 제이콥 해커 예일대 교수 윌렘 빔 쿡 前 네덜란드 총리 조셉 왕 토론토대 교수 안재홍 아주대 교수
15:45~16:00	휴식
16:00~17:45	세션 3. 공정한 사회: 사회적 경제의 확충 사 회: 앤드류 스티븐스 CNN 앵커 발 표: 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 회장 스튜어트 야스구어 아쇼카 이사 니콜라 아자르 CDI 대표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 주철기 UNGC 한국대표, 前 주불대사 박길성 고려대 교수
17:45~18:00	폐회

❖ 첨부 #2. 글로벌코리아 2012 세션 별 발표자료 요약

개막좌담회. 공생발전의 개념 및 비전

윌렘 빔 콕 前 네덜란드 총리

- 조화롭고 성공한 사회는 민간 부문, 시민사회, 정부가 공익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된 사회이며, 경제 발전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계적 영역까지 확대됨으로써 광범위한 집단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 유럽의 경우, 사회 경제적 개혁이 부진한 국가들이 현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바,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 기업과 노동조합 등 사회적 동반자들 간의 공동책임이 필수적임.
- 이념을 초월해 시장과 국가가 협력할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개혁과 위기 극복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 연합 조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신감과 신뢰를 제고할 것임.

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 회장

- 과거의 '성장'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공생발전의 열쇠는 사회와 사회 안정성, 그리고 시민정신을 중시하는 것으로, 현실적 관점에서는 질에 중점을 둔 가치 중심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前 대한민국 총리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들과 협력 중소기업들의 사업 이익 공유 촉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마련한 초과이익배분제가 대기업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바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익 공유는 둘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과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노동력의 88%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가계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이때, 오히려 투자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조한 국내 투자, 침체된 가계 경제, 늘어나는 주택 대출, 일자리 부족, 기업가 정신의 부족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장 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긍정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혁신의 표본이 되고자 함.

세션 1. 지속가능한 성장: 자본주의 성장동력의 회복

인적자본과 자본주의의 역동성 -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LSE 교수

- 자본주의는 시장 경쟁을 통해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불평등 해결은 소득 최하위 계층의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정부는 독점 규제와 공정한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은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최상위 계층에 의한 혁신의 동기를 낮추고, 부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함.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방안 - 로버트 프랭크 코넬리 교수

- 미국은 지난 30년 간의 소득불평등 심화로 현재 대부분의 소득증가분이 상위 1%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시장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진보는 높은 성과를 내는 경제 주체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상승됨.
- 상위계층의 소비를 모방하는 '지출연쇄작용' 을 통해 대출로 큰 집을 사고,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
- 금융위기로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고, 사회 초년생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한 현재 미국 상황에서 누진 소비세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번영과 행복을 위한 깨어있는 자본주의
라젠드라 시소디아 벵골리대 교수

-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상위의 목적, 이해관계자의 통합, 깨어있는 리더십, 깨어있는 문화와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전한(Sound) 정책, 제한적이지만 상식적인 규제, 철저한 투명성, 교육 개혁, 기업 진입장벽 철폐, 합리적인 세제(taxation) 등이 필요함.

공동체자본주의와 착한 공동체 -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

- 자본주의의 골간인 회사제도가 사회전체를 서비스하지 않고 소수에만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하에서, 창출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동체자본주의는 정감(Empathy)이 있는 사람(사회적기업가)과 그들이 운영하는 착한기업을 통해 공생발전을 이루는 체제이며, 착한 기업은 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소비자,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환경,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유익하게 하는 기업을 지칭함.
-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착한 기업이 늘어나야 하고, 일반 기업은 사회와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야 하며, 착한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주는 착한 가게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착한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구분해주는 시민단체의 출현, 착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 발굴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착한 기업의 핵심인 정감(Empathy)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민주주의: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4.0 전망
임혁백 고려대 교수

-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사회발전의 공정성, 생태계적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됨.

- 한국은 위기 이후 자본주의 논의에서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션 2. 미래를 위한 투자: 합리적 복지제도의 설계

서양 복지국가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필연적 관계의 역사와 미래의 시사점 스테판 라임프리트 브레멘대 교수

-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 유럽 단일 시장과 유로존의 출현으로 유럽 국가들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증가된 세금은 자본과 비즈니스를 국외로 유출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면서 노동,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EU 수준의 정치적 통합체제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
-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지출의 감소만이 아니라 경제발전 및 사회투자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유로 긴축안이 회원국 간의 재정결속을 강화해 채무위기를 극복한다면, 이는 보다 공고한 EU 건설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유럽연합은 탈공업화 경제의 기능적, 지역적 모델을 만들어 낼 기회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자율, 건강, 평생교육, 행복, 진취성을 촉진할 것임.

위험, 불평등 및 복지국가: 미국 경험의 교훈과 경고
제이콥 해커 예일대 교수

- 미국의 경우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사회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고용보호제도의 취약성과 인구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고용 형태의 변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경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이며, 불안정한 사회 환경과 원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제도에 역할을 맡기지 않고, 경제적 기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윌렘 빔 콕 前 네덜란드 총리

- 네덜란드의 복지 제도 모델은 사회적 대화와 3자 협력이라는 국가적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경제발전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표에 연계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 정부와 사회적 동반자들 간에 믿음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함.
-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모델은 새로운 개혁을 필요로 하며, 근로자의 역량 강화, 직업 보장에서 고용 보장으로의 전환 등의 변화는 고용주와 직원, 사회적 동반자, 정부 모두의 공동 의무임.

복지국가의 사각지대: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얻은 교훈

쥘셉 왕 토론토대 교수

- 불법 자금이나 은닉 자산으로 형성되는 음성소득의 확산은 부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을 가중시키며, 국가가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소득이므로 재분배 또한 불가능해짐.
- 복지국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급자 측면의 논리를 우선시 하므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을 가짐.
- 복지제도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는 반드시 선진국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방글라데시의 소액금융과 같이 개발도상국 극빈층 복지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역동성과 정치적 민주주의, 복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소규모 서유럽 국가와 한국의 비교

안재홍 아주대 교수

-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간 선순환을 위한 조건을 규명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선순환을 이끄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경제 체제의 종류를 살펴봄.
- 한국의 경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려면 정부는 대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성장 이후 모델'을 확립하고, 정당정치를 통해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야 함.

세션 3. 공정한 사회: 사회적 경제의 확충

포용, 공정성, 이익: 실패한 세계화 모델의 대안

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 회장

-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지난 30년간의 경제 이론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향후 25년간 위기가 미칠 영향의 관점에서 또 다른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19세기 대량 생산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고용을 창출하는 가치중심 접근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함.

스튜어트 야스구어 아쇼카 이사

- 아쇼카는 30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들을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하고 이들의 사회 혁신 활동을 위해 3년씩 지원해왔으며, '아쇼카 펠로우'들은 지역의 사회 혁신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롤모델 역할을 수행했는데, 실제로 절반이 넘는 펠로우들은 최근 10년 사이 선거에서 국가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냈음.
- 아쇼카는 협동적인 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의 패턴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을 가속화했음.

위기 후 해법 찾기 - 니콜라 아자르 CDI 대표

- 빈곤과 소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화로운 발전이 융합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일맥상통함.
-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기업은 민간부문이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가장 시급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
- 현재 약 100만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약 6,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Groupe SOS의 성공 사례는 다양한 사회적 빈곤 관련 문제를 다루는 노하우와 인력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업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에 기반함.

캐나다인의 관점에서 본 공정사회 -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

- 공정한 사회는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며, 견실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비전과 헌신을 공유하고, 성공과 혁신의 모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역량을 투자한다면 성취할 만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임.
-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무질서한 시장과 정부의 한계로 인한 여러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견실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데, 캐나다의 경우 실력 우선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주철기 UNGC 한국대표, 前 주불대사

- 자본주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적 실패를 수정하고, 세계 경제를 다시 바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세계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낸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같은 범세계적 가치들을 지지하고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확대를 주도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임.

공정사회를 향한 한국의 의제 - 박길성 고려대 교수

- 공정성의 결여는 한국 사회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며, 공정성은 한국 사회 변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바, 공정 사회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많은 논의가 필수적임.
- 정부의 역할은 사회-경제-정치적 자원을 배분하는 기본원리를 세우고 사회, 시장, 개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며, 기업 또한 사회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해 공동 사회를 지향하는 연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 타협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첨부 #3. 주요 연사 및 사회자 프로필

개막좌담회: 공생발전의 개념 및 비전

	<p>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교수</p> <p>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 Pissarides) 영국 런던 정경대(LSE)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의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만든 공로로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구직자와 고용주가 매칭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색 마찰'은 노동시장의 고용 공백과 실업을 동시에 야기한다. 피사리데스 교수의 '균형 실업 이론(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은 노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UC 버클리 등 세계 우수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기도 한 피사리데스 교수는 세계은행, 유럽 위원회, 잉글랜드 은행 및 OECD에서 고용과 거시 경제 관련 자문관을 역임한바 있다.</p>
	<p>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 회장</p> <p>美 타임지에서 '예언자'라는 별칭을 얻은 존 롤스톤 소울(John Ralston Saul) 국제 PEN 클럽 회장은 미국의 Utne 매거진이 선정한 '전 세계를 이끄는 100명의 사상가와 선지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세계화가 가져온 자기 파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2005년 발간한 <i>The Collapse of Globalism and the Reinvention of the World</i>는 세계화가 점차 붕괴되고 있으며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 만해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과의 인연을 돈독히 했으며, 2012년 9월에는 경주에서 열릴 제 78차 국제 PEN 총회 참석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999년에 캐나다 최고 훈장인 CC(Companion in the Order of Canada)를, 1996년에는 프랑스 예술 문화훈장(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of France, OALF)을 수훈했다.</p>

빔 콕 前 네덜란드 총리



빔 콕(Wim Kok) 前 네덜란드 총리는 재임 기간 중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경제 발전을 일궈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네덜란드 건설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노동계에 입문한 빔 콕 전 총리는 1973년부터 1985년까지 네덜란드 노동조합 연맹 총재를 역임하면서 1979년부터 1982년까지는 유럽 노동조합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1986년 네덜란드 하원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네덜란드 부총리와 재무부 장관을,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했다.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16년간 네덜란드 노동당을 이끌었다. 정계 은퇴 이후에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유럽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의 확장, 노동 시장 정책, 유럽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증대 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며, 2010년 이래로 전직 국가수반들로 구성된 마드리드 클럽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976년부터 3년 간 미국 컬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며 화폐와 금융 시장에 관해 가르치다 모교인 서울대학교로 부임해 31년간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경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는 동경대학 총장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 『거시경제론』, 『화폐와 금융시장』, 『경제학 원론』, 『한국 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동아시아 경제 위기」 등의 논문과 저서를 펴내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p>연아 마틴 캐나다 종신 연방 상원의원</p> <p>2009년 한국계 최초로 캐나다 종신 연방 상원의원에 오른 연아 마틴(Yonah Kim-Martin) 의원은 2003년에 비영리 단체 'The Korean Canadian Coactive (C3) Society'를 공동 설립해,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다문화 자문위원과 캐나다 내 한인 커뮤니티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 캐나다 내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연아 마틴 의원은 캐나다 한국 의원연맹(Canada Korea Inter Parliamentary Association)의 공동의장으로 한-캐나다 두 나라 간의 정치, 사회,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재외동포 권익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p>
	<p>나승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p> <p>이화여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나승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은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 영국, 말레이시아, 덴마크 등지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1996년 아리랑TV 출범 당시 공채1기로 입사해 뉴스 진행자, 기자, MC 등 다방면에서 역량을 펼쳤다.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와 2010 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에서는 유창한 영어와 불어 실력을 바탕으로 두 행사의 성공적인 유치에 일조한 바 있다. 2010년 4월부터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영어 커뮤니케이션 및 컨설팅 회사인 오라티오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p>

세션 1: 지속가능한 성장 - 자본주의 성장동력의 회복

	<p>현오석 KDI 원장</p> <p>현오석 KDI 원장은 경제이론과 정책경험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로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예산심의관과 세무대학장 및 부총리 자문관을 역임하고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했다. 또한 공공기관평가단장으로서 공공기관의 개혁을 주도하고 국제무역연구원장으로서 한·미 FTA, 한·EU FTA, DDA 등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KAIST 교수로 거시경제학을 연구·강의한 바 있다.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III) 준비기획단장으로서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현재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및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경제 관련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p>
	<p>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교수</p> <p>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A. Pissarides) 영국 런던 정경대(LSE)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의 '탐색 마찰'(search frictions)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만든 공로로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구직자와 고용주가 매칭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색 마찰'은 노동시장의 고용 공백과 실업을 동시에 야기한다. 피사리데스 교수의 '균형 실업 이론(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은 노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UC 버클리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기도 한 피사리데스 교수는 세계은행, 유럽 위원회, 잉글랜드 은행 및 OECD에서 고용과 거시 경제 관련 자문관을 역임한바 있다.</p>

로버트 프랭크 미국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 교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의 몰락』, 『이코노믹씽킹』, 『승자독식의 사회』를 집필한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교수는 미국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의 '경영 윤리에 관한 세미나(The Paduano Seminar)'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승자독식의 사회』는 1995년 뉴욕 타임즈 '올해의 책' 부분에 선정되었으며, 1995년 비즈니스위크지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권에도 포함되었다. 2001년까지 미국 코넬대 문리대학에서 경제학, 윤리학, 공공정책 부문 교수로 일하면서 '골드윈 스미스(The Goldwin Smith)'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 받았다. 현재 뉴욕 타임즈에 '경제학 현장(Economic View)' 칼럼을 연재중이다.

라젠드라 시소디아 미국 벤들리대 교수



'깨어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의 창시자인 라젠드라 시소디아(Dr. Rajendra Sisodia) 미국 벤들리대 교수는 2003년 세계적 마케팅 교육기관 CIM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뛰어난 마케팅 사상가 50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Trust Across America가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행동가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깨어있는 자본주의'란 회사가 단순히 주주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해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로서, CSR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나 철학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데 비해 기업 목적의 재정의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주저인 『빅3 법칙』은 미국 마케팅 협회가 수여하는 2004년 올해의 마케팅 도서에 선정되었으며,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는 아마존(Amazon.com)이 뽑은 2007년 최고의 경영서적에 선정되었다.

	<p>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p> <p>최근 발간된 『정감을 파는 가게』 저자이자 재정경제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자문관을 역임한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은 1987년부터 KDI에 근무하면서 거시경제팀장,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 운동의 전도사’로서 2002년 ‘사랑의 즐기기 운동’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착한가게(Empathy Shop)’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공동체자본주의 포럼을 출범시켜 현재 사회적 금융포럼의 회장 및 사단법인 소시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SEN, 전 SVCK)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관한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자원조달 활성화 방안』, 『공동체자본주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양성 방안』,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 등을 펴낸바 있으며, 데이비드 본스타인과 수잔 데이비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번역했다.</p>
	<p>임혁백 고려대 교수</p> <p>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SA) 집행위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동아시아, 남미, 중동 등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관련된 다방면의 비교정치 등 주요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정치경제,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시장, 국가, 민주주의』(1994),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2000), 『신유목적 민주주의』(2009), 『1987년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2011) 등이 있다.</p>

세션 2: 미래를 위한 투자 - 합리적 복지제도의 설계

	<p>임현진 서울대 교수</p> <p>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대학교, 시카고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듀크대학교에서 연구하며 가르쳤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교양교육원장, 사회개발원과 정책개발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세계은행의 자문위원, 한국일보와 교수신문 논술위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 학술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국가 석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학술회의 및 공개강연을 통해 발전문제와 관련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사회 NGO활동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종속이론, 발전,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관한 37권의 책과 15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저서로는 The New Asias, 『글로벌 NGOs』, 『세계화와 반세계화』 등이 있다.</p>
	<p>빔 콕 前 네덜란드 총리</p> <p>빔 콕(Wim Kok) 前 네덜란드 총리는 재임 기간 중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경제 발전을 일궈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네덜란드 건설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노동계에 입문한 빔 콕 전 총리는 1973년부터 1985년까지 네덜란드 노동조합 연맹 총재를 역임하면서 1979년부터 1982년까지는 유럽 노동조합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1986년 네덜란드 하원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네덜란드 부총리와 재무부 장관을,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했다.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16년간 네덜란드 노동당을 이끌었다. 정계 은퇴 이후에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와 유럽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의 확장, 노동 시장 정책, 유럽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증대 등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으며, 2010년 이래로 전직 국가수반들로 구성된 마드리드 클럽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p>

	<p>스테판 라이프리트 독일 브레멘대 교수</p> <p>스테판 라이프리트 (Stephan Leibfried) 독일 브레멘 대학 사회 정책 교수는 옥스퍼드대의 The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주편집자로 복지 국가의 역사와 투입 요소, 관계자, 정책 등 현대 전세계 복지 국가에 관련한 내용 대부분을 집대성하는 데 기여했다. 복지국가 정책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베를린 자유 대학교와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 국가전환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학 중심의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국제 정치와 자국 내 정치 간의 변화 양상 연구를 기초로 2010년 이래 독일, 미국, 영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복지 국가 발전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복지 국가로 통합되는 효과, 복지 국가로의 세계 시장 재통합, 제2차 대전 이후 나타난 국가 발전의 상호작용 지속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p>
	<p>제이콥 해커 예일대 교수</p> <p>하버드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제이콥 해커(Jacob S. Hacker) 미국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 사회 보험 연구소 부소장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Harvard Society of Fellows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7년 작성한 미국 건강 보험 보고서 “Health Care for America”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민간 건강 보험과 새로운 국가 건강보험이 경쟁하는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이후 대통령 출마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 보험 계획의 표본이 되었다. 최근 미국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해당연도에서 차기 년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소득이 최소 25% 감소한 경험을 가진 미국인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해 보여주는 경제 안전 지표(Economic Security Index, ESI)를 만들었다.</p>
	<p>조셉 왕 토론토대 교수</p> <p>토론토대 아시아 연구소장인 조셉 왕(Joseph Wong) 교수는 아시아, 북미를 비롯해 유럽 대륙의 많은 국가에 사회 복지, 산업, 과학, 기술 부문의 공공 정책 수립 자문을 수행했으며, 세계은행, 유엔, 게이츠 재단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현재 여러 개 발달도상국의 주요 현안인 빈곤, 보건 부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학, 공학, 경영학, 사회학 분야의 학자들과 함께 ‘innovating for the global south’제하의 공동 연구를 이끌고 있다.</p>

안재홍 아주대 교수



안재홍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소장은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정치학과 초빙연구원으로 현장연구를 진행했으며, 노사정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미래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비교 정치 경제학과 방법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Politics & Society* (1996) 등 많은 학술지에 스웨덴 사민주의와 복지국가, 유럽 강소 복지국가 정치경제의 비교, 비교방법론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유럽 강소 복지국가 정치경제와 한국 정치경제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근간 『성장과 복지의 정치경제: 유럽 강소국과 한국』을 집필 중이다.

세션 3: 공정한 사회 - 사회적 경제의 확충

	<p>앤드류 스티븐스 CNN 아시아태평양본부 앵커</p> <p>CNN 아시아 태평양본부 앵커 앤드류 스티븐스(Andrew Stevens)는 홍콩, 런던, 뉴욕에서 방송되는 CNN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World Business Today'의 공동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차세대 경제 강국을 노리는 인도의 모습을 살피는 CNN의 생방송 특별 프로그램인 'India Means Business', 최고 경영자들과의 생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인 'The Boardroom Master Class'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 진행한 CNN의 'Biz Asia'는 '아시아 TV 어워즈'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p>
	<p>존 롤스톤 소울 국제 PEN 회장</p> <p>美 타임지에서 '예언자'라는 별칭을 얻은 존 롤스톤 소울(John Ralston Saul) 국제 PEN 클럽 회장은 미국의 Utne 매거진이 선정한 '전 세계를 이끄는 100명의 사상가와 선지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세계화가 가져온 자기 파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2005년 발간한 <i>The Collapse of Globalism and the Reinvention of the World</i>는 세계화가 점차 붕괴되고 있으며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 만해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과의 인연을 돈독히 했으며, 2012년 9월에는 경주에서 열릴 제 78차 국제 PEN 총회 참석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999년에 캐나다 최고 훈장인 CC(Companion in the Order of Canada)를, 1996년에는 프랑스 예술 문화훈장(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of France, OALF)을 수훈했다.</p>

	<p>스튜어트 야스구어 아쇼카 이사</p> <p>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세계적 단체인 아쇼카의 스튜어트 야스구어(Stuart Yasgur) 이사는 아쇼카 내 사회적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의 위원장으로서 아쇼카의 임팩트 투자를 전두지휘하고 있다.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 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이나 기회를 찾아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투자를 지칭한다. 아쇼카 합류 이전 뉴욕에서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로 근무했으며, 신생 및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10년 가량 컨설팅을 수행했다.</p>
	<p>니콜라 아자르 CDI 대표</p> <p>사회적 기업 투자 및 컨설팅 회사 CDI 대표인 니콜라 아자르(Nicolas Hazard)는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 전 유럽위원회 집행 위원장 자문관을 역임했다. CDI는 Groupe SOS에 소속되어 있으며, 프랑스 최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 기업으로, 국제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혁신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 무역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케냐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 재단을 공동 설립했다. 현재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Groupe SOS의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투자 및 컨설팅 회사 Le Comptoir de l'Innovation (CDI) 대표직도 함께 맡고 있다.</p>
	<p>연아 마틴 캐나다 종신 연방 상원의원</p> <p>2009년 한국계 최초로 캐나다 종신 연방 상원의원에 오른 연아 마틴(Yonah Kim-Martin) 의원은 2003년에 비영리 단체 'The Korean Canadian Coactive (C3) Society'를 공동 설립해,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다문화 자문위원과 캐나다 내 한인 커뮤니티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 캐나다 내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연아 마틴 의원은 캐나다 한국 의원연맹(Canada Korea Inter Parliamentary Association)의 공동의장으로 한-캐나다 두 나라 간의 정치, 사회, 문화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재외동포 권익향상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p>

	<p>주철기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p> <p>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주철기 대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반부패 그룹의 Senior Advisor로서 국제적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972년부터 2006년 은퇴 이전까지 주 모로코 대사, 주 제네바 대사, 주 프랑스 대사, 주유네스코 대사, 외교부 본부대사로서 활동했으며, UN, OECD, APEC, ASEM, UNESCO 등 다수 국제회의에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2006년에는 유네스코 아-태그룹(ASPAC) 의장으로서 활동했으며, 같은 해에 프랑스 국가공로훈장을 받았다. 저서로는 『21세기 프랑스를 말한다』가 있으며, 이외에도 세계 경제, 유엔 시스템, 아시아-태평양 지역화 및 협력, 동아시아 정세, 국제 개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및 학술 자료를 저술했다.</p>
	<p>박길성 고려대 교수</p> <p>박길성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으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미국 유타주립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이며,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노동부, 문화관광부, 통계청,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제 저명 학술지 Global Policy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IMF 10년, 한국사회 다시 보다』,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강요된 조정, 갈등적 조율』, 『한국사회 권력이동』 등 다수가 있으며, 최근에는 Global Civil Society 2011: Globality and Absence of Justice (Palgrave Macmillan)을 공동 편집 · 출간했다.</p>

❖ 첨부 #4. 미디어 가이드

1. 프레스룸 운영

- 장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룸
- 운영 일시: 2월 23(목) 08:00~19:00
- 전체 세션 중계, 동시통역 제공, 공동 기자회견 개최

2 행사 관련 자료

- 보도자료 배포 일정

일 자		보도시간	보도자료명
2. 1(수)		배포시	글로벌코리아 2012 개최 안내
2. 9(목)		배포시	글로벌코리아 2012 세션 별 논의 방향 (인터뷰 신청서 및 미디어 가이드 포함)
2. 21(화)	10:00	2.23(목) 조간	글로벌코리아 2012 세션 별 발표 요약
2. 23(목)	세션 종료 후	배포시	개막좌담회 내용 요약
		배포시	세션 1 내용 요약
		배포시	세션 2 내용 요약
		배포시	세션 3 내용 요약

- 보도자료, 연설문 등 모든 행사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및 하드 카피(프레스룸 내) 제공
- 행사 사진은 웹하드(www.webhard.co.kr, ID: gk2012, PW: press)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음.